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 11. 13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오스트리아, 테러 용의자 정보 사전입수 불구 대처 미흡
 - 11.6 오스트리아 정부는 빈 총격 테러용의자들에 대해 사전에 독일과 슬로바키아 정부로부터 급진주의자와의 접선 정보와 탄약 구매 제보를 받았다고 인정
 - * 이로 인해 정보기관(빈 지역사무소(LVT) 수장 직무 정지
- EU,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대응 위해 '대테러 선언' 마련
 - 11.9 EU 정상들은 "유럽 정보기관의 테러리즘 게시물 접근권을 확대하고, 극단주의 이민자들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강화"하는 내용의 '대테러 선언' 초안을 마련
 - * 同 선언문은 獨·佛·오스트리아 주도로 작성, 11.13일 승인 추진중
- 스페인, '17년 바르셀로나 테러' 범인들에게 최고 41년형 구형
 - 11.10 스페인 검찰은 '17.8 바르셀로나에서 차량돌진테러*를 저지른 테러범 2명과 공범에게 테러 모의·테러조직 가입·폭발물 소지 등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41년·36년·8년을 구형
 - * '17.8.17 테러범들이 화물차로 인파를 향해 돌진 16명 사망·140여명 부상

미주

- 美,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 지체에 따른 테러 위협 우려
 - 11.11 CNN은 「트럼프」 대통령의 大選 불복과 백악관 등 정부기관 인수인계 금지 지시로 「바이든」 당선인 측의 정권인수가 늦어지고 있으며, 이는 테러 등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
 - * '9·11 테러 조사 보고서'는 「부시」 정권으로의 교체 지체로 국가안보팀 구성이 늦어져 9·11 테러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

아 · 태평양

- 대테러센터, '2020 국가 대테러종합훈련' 실시
 - 11.6 대테러센터는 인천국제공항에서 △불법 드론 출현, △항공기 피랍, △공항시설 점거 등 복합테러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(8개 기관 · 200명 참여)의 대테러 통합작전 역량을 점검
- 경찰청, 駐韓 佛대사관 협박 전단 부착 외국인 전원 검거 및 구속
 - 11.6 서대문경찰서는 同대사관에 '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'는 내용의 전단을 붙인 외국인 2명을 검거하여 외교 사절에 대한 협박 혐의로 입건하였으며, 테러단체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
 - * 서울서부지법은 용의자들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
- 中, 美의 'ETIM' 테러단체 지정 해제로 위협 고조 주장
 - 11.8 홍콩언론은 미국이 중국 신장지역의 '東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(ETIM)*'을 테러단체 목록에서 삭제(11.6)함에 따라, 양국이 대테러작전에서 협력할 기회가 사라지고 중국내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('02.9), 英('16.7), 中('03.12) / 美('02.9)

중동·아프리카

- 외교부, 탄자니아 일부지역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로 상향
 - 11.9 외교부는 탄자니아 남부 음투와라州에서 최근 ISIS의 경찰서 공격 등 테러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 同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한다고 발표
 - * 1단계(여행유의)-2단계(여행자제)-3단계(철수권고)-4단계(여행금지)
- 駐사우디 佛대사관, '1차 세계대전 기념행사장' 폭탄테러 발생
 - 11.11 AFP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市에서 프랑스대사관이 주최하고 유럽 외교관들이 참석한 제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행사에서 사제폭탄 공격으로 4명이 다쳤다고 보도
 - * 10.29 駐사우디 佛영사관 경비원 흥기 피격 사건 이후 약 2주 만에 발생

'05년 요르단 암만 호텔 연쇄 자살폭탄테러

- '05.11.9 21시경 요르단 수도 암만에 소재한 고급호텔 3곳에서 연쇄 자살폭탄테러가 발생, 67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부상
 - 1·2차 폭발은 '래디슨 SAS 호텔' 연회장과 '그랜드 하얏트 호텔' 로비에서 허리에 폭발물 벨트를 두른 테러범들이 폭탄을 터뜨렸으며,
 - 3차 폭발은 폭탄을 가득 실은 차량을 운전하던 테러범이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'데이스 인 호텔' 입구에서 경비원에게 차량을 정차당하자 자폭테러를 감행
- 사건 직후, 알카에다 대변인은 “요르단이 암만의 호텔들을 유대인과 십자군의 뒤뜰로 내준 대가로 공격을 감행했다”고 주장
- 요르단 정부는 親美·親이스라엘 정책을 펴온 요르단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며,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테러라고 비난

< 알-카에다(AQ) >

- (목표·결성) 쏘세계 이슬람 원리주의 확산 및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「오사마 빈라덴」이 아프간에서 활동하던 각국 출신 對소련 항쟁 참전자들을 규합하여 '88년 결성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('10.10), 미국('99.10), 캐나다('02.7), 영국·호주·인도·러시아 등
- (연계세력) 탈레반, 알카에다 마그렙 지부(AQIM), 예멘 알카에다(AQAP), 하얏트 타흐리르 알 샴(HTS), 이슬람·무슬림 지지그룹(JNIM) 등
- (활동지역) 아프간·파키스탄 접경지역
- (주요테러) '19.8 예멘 남부 아비안주 軍기지 습격(20여명 사망)
 '19.7 소말리아 남부 항구도시 키스마유 호텔 폭탄테러(사망 26명, 부상 56명)
 '05.7 영국 런던 지하철과 버스 연쇄 폭탄테러(사망 56명, 부상 770명)
 '01.9 美 항공기 4대를 납치, 뉴욕 등에서 공중 충돌 테러(사망 2,996명)